

근현대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의 공간변화와 '학교염전'의 설치*

김경옥**

〈차 례〉

1. 머리말
2. 개간과 간척으로 인한 도초도의 공간변화
3. 새로운 제방 건설과 '학교염전'의 설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라도 나주목 부속도서인 都草島(현 신안군 도초면) 간척에 관한 사례이다. 조선전기 도초도는 목장과 송전을 설치하였다. 즉 섬이 주민들을 위한 정주공간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국용조달을 위한 송전과 목장으로 활용되었다. 조선후기에 내륙지역 유이민들이 섬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마을 앞에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만들었다. 이때 조성된 제방을 '舊堰' 혹은 '內堰'이라 불렀다. 그 후 섬사람들은 구언 너머에 '新堰'을 축조하여 점차 간척지의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해방이후 도초도 사람들은 미개발된 섬의 북부에 외남방조제를 축조하여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간척공사가 완료되자, 섬사람들은 간척지의 일부 地目を '학교염전'이라 칭하고, 이 재원을 '都草高等公民學校'의 운영비로 기부하였다. 근현대 섬에서 이루어진 간척 사업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779).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기금교수.

[주제어]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 이주민, 입도조, 송전, 목장, 토지, 간척, 제방, 염전, 학교염전, 지적도, 토지대장, 도초고등공민학교

1. 머리말

섬의 공간은 간척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왔다. 섬사람들은 밀려오는 바닷물을 차단하기 위해 둑을 쌓고, 농경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다. 새로 축조된 제방과 저수지 주변에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간척지는 섬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전답, 염전, 공장, 학교부지 등 각종 地目을 부여받았다. 이런 까닭에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 사람들은 바닷가에 제방을 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水畚’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명을 ‘水多里’라 칭하였다고 한다.¹⁾ 그러나 새로 조성된 간척지는 아직 짠물을 머금고 있어서 곧장 논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간척지는 먼저 밭으로 사용되었다.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은 비교적 염기에 강한 목화·콩·보리 등이었다. 목화밭과 보리밭이 논으로 바뀌는데 대략 10년이 소요되었다.²⁾ 다만 예외적으로 갈대가 무성한 ‘빨등밭’의 경우 둑을 쌓은 지 2~3년만 경과해도 水畚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³⁾ 갈대를 잘라 빨등에 쌓아놓으면 저절로 부패하게 되는데, 이 때 염수도 함께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간척지는 수차례 개토되어 논으로 거듭났다.

지금까지 역사분야 간척 연구는 ‘15세기에 갯벌을 파내거나 바닷가에 제방을 쌓아서 간척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⁴⁾ 실제 조선 세종 때 의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바닷가 연해 토지의 소출량이 陸畓보다 두 배나 많은데, 그 광대한 제방을 축조하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수 백 명을

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3, 451~452쪽.

2) 제보자: 김○철, 전남 신안군 도초면 신촌마을 거주.

3) 제보자: 김○복,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마을 거주.

4) 이태진, 「15~16세기의 저평·저습지 개간농업」, 『국사관논총』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김영옥, 「조선시기 畝間 사람들의 입도와 축통·제언을 통한 토지개간」, 『도서문화』 32,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2008.

동원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집이나 왕실 사람들이 간척하였다.’라고 하였다.⁵⁾ 또 숙종 때 ‘어의궁과 명례궁에서 전라도 영암의 부속도서에 제언을 쌓아 간척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⁶⁾ 또 고종 때 ‘명례궁이 나주 비금도에서 간척지를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377결이었다.’라는 기사도 확인된다.⁷⁾ 그런가하면 전라도 해남윤씨 문중 소장 고문서를 분석하여 ‘해남윤씨가 보길도(현 완도군 보길면)와 맹골도(현 진도군 조도면)에서 海堰田을 간척하였는데, 그로부터 섬의 토지·어장·곽전[미역] 등을 경영하게 되었다.’라는 사례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⁸⁾ 이렇듯 전근대 간척 연구는 주도세력(왕실·재지양반·지역민), 간척방법(築筒·堤堰), 간척규모 등 관련 기록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간척지의 위치 비정이라든가, 간척 이후 섬의 공간변화, 그리고 간척지 이용실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한말~일제강점기 도서지역 간척 연구에 의하면, 제언의 위치·형태·규모, 제방을 축조·관리하였던 사람들[作人·保主·水口], 제언과 언답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직[堰契] 등 간척 관련 일괄문서가 발굴되면서 간척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⁹⁾ 예컨대 나주목 비금도 사례연구의 경우 20세기 초에 작성된 지적도 분석을 통해 전근대 섬의 공간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그 후속연구로 추진된 비금도의 부속도서인 가산도 사례의 경우 간척 과정에서 작은 섬이 소멸되고 대신 대규모 천일염전이 설치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¹⁰⁾ 또 신안 안좌도 읍동 전진언 사례의 경우 원래

5)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23일 을축.

6) 『全羅道靈巖郡於義宮立案買得是在郡地昆一道牛嶼堰新築堰壑及簡粟刈取處打量成冊』, 1677년 4월,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奎 18406.

7) 『비변사등록』 261책, 고종 17년 4월 25일.

8) 정윤섭, 『조선후기 해남윤씨가의 해언전 개발과 도서·연해경영』,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정윤섭, 『해남윤씨가의 간척과 도서 경영』, 민속원, 2012.

9) 김경옥, 『19~20세기 안좌도 전진언수계기를 통해 본 제언 축조와 운영 실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0~42쪽.

10) 김경옥, 『19~20세기 비금도 간척지의 조성과정과 이용 실태』,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495~524쪽; 김경옥, 『20세기 비금도 가산리의 공간변화와 간척지의 이용실태』, 『역사와 경계』 102, 부산경남사학회, 2017, 111~145쪽.

개인 주도로 제방[뚝]을 쌓아 간척지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1948년 자연재해로 인해 제방과 간척지가 붕괴되고 말았다. 이 때 섬 주민들이 제방을 복구하면서 기록한 『前津堰修契記』를 통해 섬사람들의 제방관리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었다.¹¹⁾ 또 나주목의 부속도서인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사례의 경우 바닷가에 제방을 축조한 김해김씨가 점차 섬을 대표하는 지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확인된 바 있다.¹²⁾ 이 모두가 간척의 결과다. 이처럼 근현대 도서 지역 간척연구는 해당 섬의 입지와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섬의 문화상을 검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주목된다.

본고는 전라도 나주목 도초도 간척 사례연구이다. 근현대 개간과 간척으로 인한 섬의 공간변화와 ‘학교염전’의 설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근대 도초도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추적하였다. 예컨대 도초도의 자연환경, 도서 이주민들의 입도와 정착, 개간과 간척으로 인한 섬의 공간변화 등이다. 둘째, 근대 도초도에 제방과 저수지 등이 새로 건설되면서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섬 주민들은 간척지의 일부를 ‘학교염전’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1952년에 ‘도초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 과연 도초도 사람들은 왜 간척지의 지목을 ‘학교염전’이라 칭하게 되었는지, 학교염전과 중등교육기관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도초도의 지형변화를 읽을 수 있는 『전라남도무안군도초면지적원도』(1910~1918), 『도초면토지대장』(1916), 『도초면방조제대장』, 『鹽田開發鹽製造許可證』,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도초고등공민학교연혁지』(1962~1964), 『재산대장』(1964), 『법인임원승인대장』(1964) 등이다. 이를 통해 근현대 섬의 공간변화와 ‘학교염전’이라 부르는 지목이 섬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11) 각주 9) 참조.

12) 김경옥, 「19~20세기 암태도 주민들의 제연축조와 경제생활-익금리 관두언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393~422쪽.

2. 개간과 간척으로 인한 도초도의 공간변화

1) 국용조달을 위한 송전과 목장의 설치

간척 이전 도초도는 어떤 섬이었을까? 역대 관찬자료와 고지도를 통해 그 흔적을 추적해보자. 조선시대에 도초도는 전라도 나주목의 부속도서로 편제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도초도를 검색해 보면 총 7건이 검출되는데, 그 첫 번째 기사가 세종 30년(1448) 의정부의 보고 내용이다.¹³⁾ 이에 따르면, '병선은 국가의 도독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이 벌목하지 않도록 입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무뢰배들이 국법을 어기고 소나무를 벌목하여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섬과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조사하여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즉 세종 때 병조에서 파악한 소나무 군락지가 바로 松田인데, 국법을 어기면서 벌목한 사람들 때문에 송전이 급격히 소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가 다음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1] 15세기 전라도 서남해역 송전 군락지¹⁴⁾

지역	송전 군락지
강진	月伊串, 佐谷串, 山巒島, 莞島, 古示島(현 古今島), 仙山島(현 靑山島)
광양	猫島
나주	多利島, 飛示島(현 비금도), 都草島, 巖泰島, 安昌島, 慈恩島, 其佐島, 八尙島(현 팔금도), 荷衣島, 伊示島, 松島
낙안	獐島, 龍頭串
무안	茅頭串
순천	松島, 長省浦串, 三日浦串, 京島, 金鰲島
영광	毛也島, 每音帖島, 古耳島, 甌島, 沙島串, 槍頭串, 臨湍島

13)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경진.

14) 김경욱, 앞의 책, 155~156쪽 재인용.

영암	甫吉島, 露島(노화도), 海除串
장흥	大伊每島, 牛頭串, 帳內串
진도	加土島, 坪島, 草島
함평	海際串, 石浦串, 金浦串
해남	珍山串, 草島, 坪島, 加兒島
홍양	松串, 舟浦串, 牛頭串, 望智串, 荒山串, 場巖串, 朴吉串, 伊老島, 俠島, 井島, 酒島, 頃竹島, 蛇浦串, 加羅浦, 所訖羅串, 介島, 其火島, 災山島, 城頭串

위의 [표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5세기 병조는 전국을 대상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파악하였다. 전라도 나주목의 경우 도초도를 비롯하여 인근 해역에 있는 비금도, 하의도, 암태도, 안창도(현 안좌도), 자은도, 팔금도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조선 세조대에 이르면 도초도에 관한 또 다른 정보가 확인된다. 바로 목장에 관한 것이다. 즉 세조 12년(1466)에 병조에서 이르기를, ‘도초도 검감목 陳孝友가 소 108마리를 감독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법에 의해 징납하는 것이 적실합니다.’라고 하였다.¹⁵⁾ 이렇듯 조선전기에 도초도가 중앙 관료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은 섬에 설치되어 있던 목장 때문이었다. 실제 15세기 서남해 도서지역에 설치되었던 목장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15세기 전라도 서남해 연해 도서지역에 설치된 목장⁶⁾

시기	지방	목장 분포	전거(권/년/월/일)
세종 18년(1436)	홍양	道陽串	『세종실록』 74/18/7/25/무오
	나주	智島, 長山島, 慈恩島	
	무안	臨淄島	
세종 27년(1445)	나주	押海島	『세종실록』 110/27/10/9/경술
	무안	海際串	
	해남	黃原串	

15)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2월 24일 병신.

16)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47~105쪽 재인용.

세종 28년(1446)	무안	多慶申	『세종실록』 111/28/1/23/신묘
	진도	女歸山, 金甲島, 南桃浦, 富支山	
단종 1년(1453)	강진	桂站申, 召藥島(藥山島)	『단종실록』 5/1/1/19/정축
	홍양	外伊每島	
	순천	麗水申	
	영광	九岫申	『단종실록』 5/1/1/19/정축
	영암	露島(蘆花島)	
	해남	禿冬音申	
단종 2년(1454)	해남	笠巖申	『단종실록』 11/2/6/5/병술
세조 12년(1466)	홍양	折爾島, 鹿島, 伊每島	『세조실록』 38/12/2/21/계사 『세조실록』 38/12/2/24/병신
	나주	都草島	
	장흥	助役島	
	진도	加兒島	
성종 1년(1470)	강진	新智島	『성종실록』 2/1/1/4/계미
	나주	安昌島, 其佐島, 古耳島	
	장흥	來德島	
	진도	智歷山	
성종 24년(1493)	나주	巖泰島	『성종실록』 282/24/9/14/을사

위의 [표2]에서 보듯이, 15세기 전라도 서남해 연해 도서에 총 34개의 목장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나주목에 소속된 목장으로 도초도를 비롯하여 지도, 장산도, 자은도, 압해도, 안창도(현 안좌도), 기좌도(현 안좌도), 고이도, 암태도 등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세기 도초도에 송전과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이 시기의 섬은 사람들을 위한 정주공간의 기능보다는 국가재용을 조달하기 위한 송전과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내륙지역 유이민들의 이주와 정주공간의 형성

과연 도초도는 언제부터 사람들의 정주공간으로 활용되었을까? 누가 언제

도초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은 오늘날 도초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계 선조의 입도유래를 추적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표3]은 도초도 사람들의 입도유래를 성씨별 『족보』를 통해 검출한 것이다.

[표3] 『족보』를 통해 본 도초도 사람들의 입도유래¹⁷⁾

법정리	자연촌	입도시기	성씨(입도조)	입도 전 거주지
발매리	화도	1598	한양조씨(조사숙)	도초도(월포)
	월포	1598	한양조씨(조한영)	장성(북일)
	발매	1650	함양박씨(박순흠)	영암(구림)
	춘경	1658	함양박씨(박세경)	영암
지남리	지남	1598	한양조씨(조한홍)	장성(북일)
			밀양박씨(박창선)	해남
			경주최씨	경북(군위)
	죽도	1598	달성배씨(배진석)	광주
	지북	1598	한양조씨(조한성)	장성(북일)
	지동	1608	경주김씨(김서량)	우이도
경주최씨(최옥만)			해남(화산)	
외남리	외하	1598	김해김씨(김치우)	전북(남원)
	외상	1718	장흥고씨(고시략)	도초도(죽련)
	신촌	1925	장흥고씨(고장안·고정언)	도초도(외상)
수향리	수향	1638	제주한씨(한충언)	영암
		1688	남평문씨(문일득·문일생)	보성
	궁항	1708	경주최씨(최우명)	장산도
	니박포	1838	김해김씨(김영국)	흑산도
죽련리	죽련	1628	김해김씨(김래학)	해남
	신교	1658	김해김씨(김계원)	영암
			광산노씨(노치강)	비금도
			낭주최씨(최시관)	영암

17) [표3]은 『신안군지』 권4, 신안의 섬이야기, 신안군지편찬위원회, 2017, 437~445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고란리	고란	1598	장흥고씨(고창유)	김해김씨·창원황씨의 입도설이 있음
	난말	1598	창원황씨	
오류리	시목	1598	경주최씨(최운기)	해남(화산)
	오류	1650	김해김씨(김윤급)	영암
	엄목	1786	원주이씨(이유현)	영암
이곡리	이곡상	1640	남평문씨(문이장)	남평
	소신	1650	안동권씨(권소봉)	해남
	이곡하	1657	김해김씨(김철)	영암
			밀양박씨(박수방)	경남
		1748	장흥고씨(고사은·고사음)	장흥
	조진	1748	장흥고씨(고사길)	장흥
김해김씨				
만년리	만년	1630	김해김씨(김서홍)	해남(화산)
	도락	1630	평산신씨(신덕모)	하의도
			김해김씨(김서홍)	해남(화산)
	한발	1640	함양박씨(박세문)	영암
		1750	장흥고씨(고창유)	담양
수다리	나포	1598	파평윤씨(윤덕오)	강진
	수다	1724	함양박씨(박세문)	영암
			파평윤씨(윤지하)	장성
	명당	미상	함양박씨(박용권)	
			함양박씨(박정훈)	영암(구림)
			함양박씨(박정민)	도초도(발매)
	용동	미상	김해김씨(김윤모)	하의도
경주최씨			하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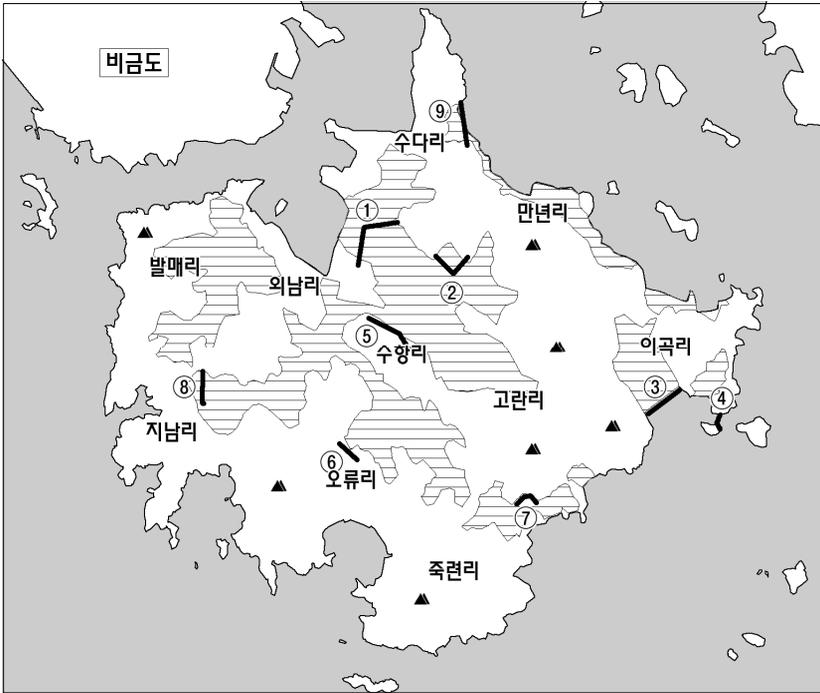
위의 [표3]에서 보듯이, 도초도 사람들의 입도유래 총 47건을 수집하였다.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16세기 12건(16.2%), 17세기 21건(44.7%), 18세기 7건(14.9%), 19세기 1건(2.1%), 20세기 1건(2.1%), 미상 5건(10.6%) 등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16~17세기에 도초도로 입도한 사례가 47건 중 33건으

로 무려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 초창기 도초도 이주민들의 세거지는 발매리의 화도(속칭 불섬)와 월포, 지남리의 지남과 지북, 외남리의 외하(현 외남하리), 고란리의 고란과 난말, 오류리의 시목, 수다리의 나포 등으로 확인된다. 즉 발매리에 한양조씨가 전남 장성(북일면)에서 이주해왔고, 지남리의 한양조씨는 발매리 입도조와 그 갈래가 동일하였다. 또 밀양박씨가 전남 해남에서, 경주최씨가 경북 군위에서 각각 이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외남리 외하마을로 김해김씨가 전북 남원에서 입도하였고, 고란리 고란마을에 장흥고씨, 난말에 창원황씨, 그리고 오류리 시목마을로 경주최씨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 이주하였으며, 수다리 나포마을로 파평윤씨가 전남 강진에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16세기에 도초도로 이주한 사람들의 정주공간의 입지를 살펴보면 문전옥답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을 지도에 표기해 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보듯이, 발매리 화도와 월포는 오늘날 도초도에서 흑산도로 가는 뱃길이자, 동시에 목포로 가는 정기 여객선이 정박하는 주요 포구다. 火島라는 지명은 선박이 귀하던 시절에 햇불을 밝혀 인근 섬사람들과 소통하였던 옛 포구이다. 예컨대 도초도 사람들이 바다 건너 비금도로 가기 위해 선창가에서 햇불을 들어 올리면, 맞은 편 뱃머리에 정박해있던 배가 와서 서로 왕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명이 ‘불화[火], 섬도[島]’를 써서 ‘불섬’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화도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뱃머리가 섬에 닿을 수 있도록 마치 지형이 바다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뒷산인 오봉산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안쪽에 문전옥답과 정주공간이 맞춤형에 입지하고 있다. 또 지남리의 지남·지북·죽도 일원, 오류리의 시목, 외남리의 외남하리, 고란리의 난말과 고란마을, 수다리 나박포 등이 모두 동일한 입지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초도 고란리(고란마을)에서 수다리에 이르는 고란평야는 도초도를 대표하는 전답이자, 신안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들녘으로 알려져 있다.

목된다. 즉 도초도 선주민들의 세거지이자 문전옥답이 분포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러한 추론은 도초도 제방 분포를 통해 확인 가능하였다. 실제 도초도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舊堰과 新堰의 위치를 비교하여 그 상관성을 검출하였다. 그 내용이 다음 [그림2]와 [표4]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2] 舊堰의 위치도

[표4] 舊堰의 입지¹⁸⁾

번호	지명	구연의 입지
①	수다	용동리-수역삼-면소재지
②	만년	동메-난말리
③	이곡	이곡양식장 경계
④	조진	마을 앞

⑤	궁항	들곶이산
⑥	오류	마을 앞 신작로
⑦	죽련	마을 앞 신작로
⑧	지남	공알바위
⑨	명당	도락방조제 안쪽

위의 [그림2]와 [표4]에서 보듯이, 17세기 도초도 이주민들이 세거지로 선점하였던 지점과 구언의 위치가 상당히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7세기 도초도 입도조들의 세거지였던 지남리 지동, 수항리 궁항, 죽련리 신교, 오류리 오류, 이곡리 이곡상·이곡하, 만년리 만년 등지에서 구언의 입지가 겹쳐 보인다. 이렇듯 舊堰 너머 新堰이 축조되고, 또 신언 너머 바닷가에 새로운 제방을 설치하면서 간척지의 외연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3) 성균관의 수세지로 편성된 도초도의 토지

17세기에 이르면 도초도의 위상이 크게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초도 주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효종 6년(1655) 성균관의 보고에서 확인된다. 성균관에서 이르기를, '부안의 위도, 영암의 추자도, 나주의 도초도, 영광의 각리도·작도·자운평 등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성균관에 편성하여 운영해왔는데 중도에 왕실세력이 이를 점탈하였으니 원래대로 다시 성균관에 귀속시켜 주십시오.'라는 원정을 올렸다.¹⁸⁾ 이를 통해 17세기 중엽 도초도 사람들이 한양의 성균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섬 주민들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편제하였다는 것은 곧 정주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론은 17세기 중엽 성균관에서 올린 보고서에서 입증된다. 조선

18) [표4]와 [그림2]는 이광록의 『근대 신안군 도초도의 간척과 그 영향』,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2쪽을 재인용하였다.

19) 『효종실록』 권15, 효종 6년 7월 24일 병오.

현종 3년(1662)에 성균관에서 아뢰기를, ‘선비를 기르는 자본은 지극히 풍부하게 해서 전후로 하사한 토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안의 위도, 나주의 도초도, 영광의 각리도, 영암의 추자도를 비롯하여 경기의 강화도와 교동도, 인천 등지에서 수세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지 이미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²⁰⁾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듯이, 도초도 주민들은 한양의 성균관에 토지세를 납부한지 이미 수백 년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도초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과연 당시 도초도의 토지는 섬의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는가를 건토헌 필요가 있다. 현전하는 지적도를 토대로 전근대 도초도의 전답을 지도에 그려보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도초도의 토지 분포도

20) 『현종개수실록』 권8, 현종 3년 12월 14일 계축.

[그림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초도는 크고 작은 섬이 간척으로 인해 한 개의 섬으로 통합되어 있는 양상이다. 물론 이 지도는 오늘날 도초도의 위성사진에 조선시대 때 조성된 전답을 표기한 것이어서 공간구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주목할 것은 도초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농경지이다. [그림3]에서 보듯이, 도초도의 크고 작은 섬이 간척으로 인해 큰 섬에 통합되고, 그 안쪽에 대규모 전답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보다 후대에 제작된 기록과 비교해보면 그 변화의 정도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에 제작된 지적도와 문헌을 비교 검토하였다.

먼저 도초도의 공간에 대한 기록이 『한국수산지』(1911)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도초도의 북부는 산맥과 구릉이 있지만 높은 산은 없다. 또 섬의 서남부 일대가 개간되어 경지가 많고 농산물이 풍부하다. 섬의 북동 일대는 갯벌이 널려 있고, 남서부는 곳곳에 모래톱이 이어지나 기슭으로 연결되어 수심이 깊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로써 보건대 1911년 도초도는 섬의 서남부 일대에 농경지가 많고, 북동 일대에 갯벌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초도의 공간정보는 1916년 통계에서 보다 확실하게 검출되었다. 즉 1916년에 제작된 『도초면지적도』와 『도초면토지대장』에서 필지를 비교한 결과 간척이전 도초도 전답 분포도를 어느 정도 검출할 수 있었다. 다음 [표5]가 1916년 도초도의 지목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5] 1916년 도초도의 간척지 지목별 현황

지명	지목					합계
	전	답	임야	잡종	묘	
고란리	762	651	46	12	6	1,623
만년리	532	636	59	20	9	1,399
발매리	552	583	82	23	5	1,360
수다리	584	542	31	43	7	1,329
수향리	646	617	55	61	13	1,534

오류리	487	553	37	6	13	1,181
외남리	490	470	104	31	8	1,212
이곡리	668	724	19	29	24	1,577
죽련리	560	676	21	35	15	1,422
지남리	679	822	60	6	17	1,745
합계	5,960	6,274	514	266	117	14,382

위의 [표5]에서 보듯이 1916년 당시 도초도에서 가장 넓은 필지는 지남리(1,745), 고란리(1,623), 이곡리(1,577), 수항리(1,534) 순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전답’을 단위로 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지남리(1,501), 고란리(1,413), 이곡리(1,392) 등이다. 또 전답 가운데 밭을 제외한 논을 단위로 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지남리(822), 이곡리(724), 죽련리(676), 고란리(651) 등이다. 결국 1916년 도초도의 필지는 섬의 서편에 입지한 지남리와 섬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란리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또 섬의 남쪽에 입지한 이곡리, 수항리, 죽련리 일대가 후발 주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제방 건설과 ‘학교염전’의 설치

1) 섬의 북부에 축조된 제방과 간척지

20세기 초 도초도의 공간은 어땠을까? 우선 간척으로 인한 섬의 공간변화는 가장 먼저 행정중심지로 부각되었다. 전근대 도초도는 나주목의 부속도서로 편제되어왔다. 그런데 1895년에 섬을 단위로 하여 3군이 신설되었다. 즉 서해 무안반도 앞 바다에 입지한 智島郡, 남해의 莞島郡, 여수 앞바다의 突山郡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도초도를 비롯하여 오늘날 신안군의 부속도서가 모두 지도군에 편제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경과된 1914년에 도초도는 지도군에서 무안군으로 이속되었고, 이 때 도초도 고란리에 도초면사무소가 개

설되었다. 그곳에 고란리의 고란평야가 드넓게 입지하고 있었다. 즉 고란평야의 광활한 토지를 배경으로 1910년대 도초도 사람들의 생활권이 형성된 것이다.

근대 도초도의 공간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자. 이는 근대에 새로 축조된 제방 축조 현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전하는 『도초면방조제대장』을 토대로 근대에 건설된 도초도 제방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6]과 같다.²¹⁾

[표6] 20세기 도초도에 설치된 제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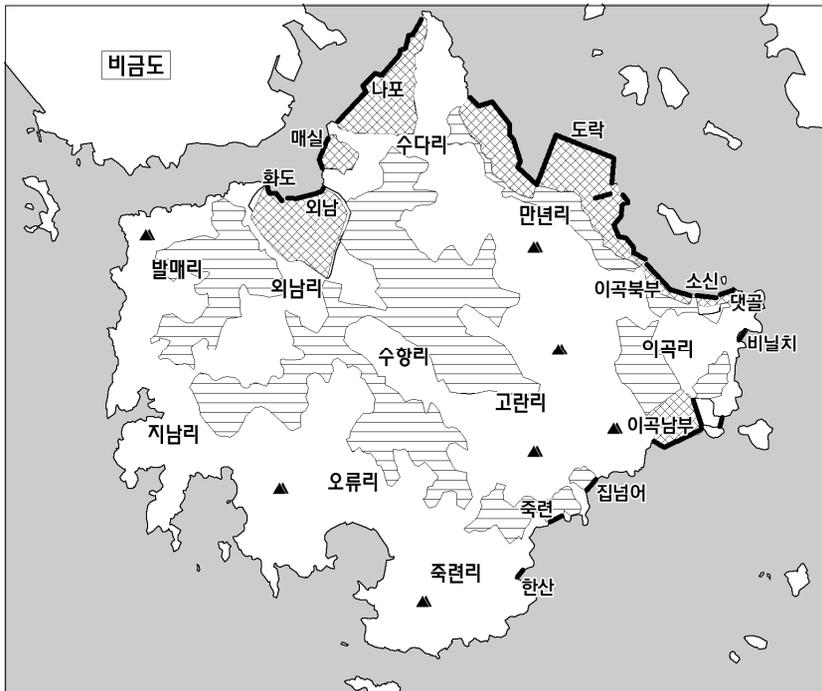
법정리	방조제	축조시기	제방 (길이)	면적 (ha)	지목			비고 (소멸섬, 신설염전)
					논	염전	기타	
죽련리	집남어	1930	186	8.0	6.0	0	2.0	
	한산	1932	165	7.0	5.0	0	2.0	
	죽련	1938~1939	850	-	-	-	-	탄섬, 동메산
이곡리	이곡	1939~1940	1,200	45.0	0	45.0	0	
죽련리	비닐치	1942	296	2.7	1.0	0	1.7	
이곡리	소신	1942~1943	319	7.4	4.5	2.4	0.5	소신염전
외남리	외남	1947	651	50.2	0	42.0	8.2	민영염전, 도남염전
발매리	화도	1948	552	34.5	0	29.0	5.5	불섬
수다리	나포	1949	296	90.7	1.0	88.0	1.7	
	명당	1950	-	-	-	-	-	제방붕괴, 버럭섬
이곡리	맷골	1950	175	2.7	1.0	0	1.7	
	조진	1952	425	9.3	0	7.0	2.3	술섬
수다리	매실	1956	715	16.8	9.0	6.8	1.0	매실섬
	도락	1967	4,869	140.0		124.6	15.4	동굴섬

위의 [표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 도초도에 새로 축조

21) 20세기 전반 도초도에 설치된 제방에 얽힌 구체적인 이야기는 목포대 도시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비금면·도초면』, 신안군, 2015, 106~141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된 방조제 총 14개소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방조제가 집념어방조제, 한산방조제, 죽련방조제, 이곡방조제 등으로 확인된다. 이들 방조제가 입지한 공간은 모두 섬의 남부에 해당하는 죽련리와 이곡리에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방조제의 입지를 지도에 그려보면 [그림4]와 같다. 이 가운데 죽련방조제의 경우 <큰산~동메~판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제방 건설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메와 판섬 등 작은 섬이 소멸되었다. 그런가하면 이곡리 이곡방조제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각각 방조제가 축조되었는데, 이곡리 소신마을 외곽에 북부방조제가 설치되고, 조진마을 아래에 남부방조제가 건립되었다. 이들 방조제는 조선시대이래로 소규모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오다가 근대에 구연 외곽에 새로운 제방을 구축하여 대단위 농경지를 조성한 것이다.



[그림4] 근현대 도초도에 건설된 방조제 분포도

한편 섬의 중앙에 입지하고 있던 고란평야 등 농경지는 이미 전근대에 축조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바닷물의 범람으로 인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죽련리와 이곡리 일대에 대규모 간척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섬의 중앙과 남부의 토지가 해수침범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도초면의 제2의 행정중심지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대 고란리에 면사무소를 개설하였던 도초도 사람들은 1930년대 수항리 나박포 일원으로 행정중심지를 이동하였다. 즉 섬의 깊숙한 곳에 입지한 나박포가 포구로 활용되면서 1930년대 행정중심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도초도 사람들은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섬의 북부를 중심으로 간척공사를 기획하였다. 도초도의 북부가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도초도의 옛 포구는 수항리에 위치한 나박포였다. 수항(水項)이란 지명이 '물목'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박포에 고깃배들이 많이 정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45년 나박포 일대가 간척되면서 수항리에 '구뭇개, 귀등포, 나박포-빨뚱, 탄-섬, 메-답, 목-너메, 삼곳-밀, 아랫-빨뚱, 웃-빨뚱, 중-들, 탑선-구지' 등 간척지가 조성되었다.²²⁾ 이렇듯 나박포 일대가 농경지로 전환된 배경이 바로 섬사람들이 '새원'이라 부르는 외남방조제 공사의 결과였다. 1947년에 외남방조제가 건설되자, 섬사람들은 소위 '새원[새언]'이라 칭하였다. 그 이듬해인 1948년 불섬에 화도방조제가 축조되어 이것을 '외원[외언]'이라 불렀다. 이들 새언과 외언이 완성되면서 도초도의 행정중심지였던 나박포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외곽에 위치한 화도가 도초면의 새로운 항구로 개발되었다.²³⁾

2) '새원[새언]'과 '외원[외언]' 축조를 위한 공공울력

도초도 북부 바닷길의 길목에 화도선착장이 입지한다. 이곳에서 뱃머리를

2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3, 448~459쪽.

2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위의 책, 106~189쪽.

서쪽으로 향하면 흑산도에 당도하고, 동쪽으로 기수를 돌리면 목포로 향하는 바닷길이 열려있다. 또 바다 건너 비금도가 미주보고 있다. 근현대 이 일대의 간척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도초도 주민들이 총동원되었다. 바로 1947년의 일이다. 도초도 사람들이 흔히 ‘새원[새언]’이라 부르는 외남방조제를 건설할 당시의 이야기다. 물론 전근대이래로 도초도 사람들은 마을 앞에 제방을 쌓아 소규모 간척지를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이것을 ‘구언’ 혹은 ‘내언’이라 불렀다. 즉 옛날에 둑을 쌓아 간척지가 섬 안쪽에 입지한다는 의미다. 그 구언 너머에 새로 제방을 쌓아 간척지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도초도 사람들은 ‘구언’ 너머에 ‘새언’을 막아야겠다’고 베풀고 있었다. 방조제를 축조하는 일은 새로 부임한 면장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도초도 사람들이 새언 축조를 희망했던 이유는 간척지 확장의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해수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도초도는 태풍과 해일에 매우 취약하였다. 그래서 도초도 사람들은 다른 섬에 비해 일찍 간척사업을 추진하여 대단위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바닷물의 범람으로 인해 섬 전역이 침수되기 일췌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부 간척공사는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즉 북부 공사를 통해 해수 침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도초도 주민 모두가 북부 간척을 환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제방을 구축한 섬의 동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언을 축조하는 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 공사가 잘못되어 혹여 배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제13대 김종휴 면장(1946.10~1950.6)이 북부 간척공사를 선포하였다.²⁴⁾ 이에 도초도 주민들은 제방 축조에 모두 참여하였다. 당시 도초도의 풍경을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들여다보자.²⁵⁾

a-1) 도초면은 행정단위가 10개요. 해수가 들어오면 10리 중 침수피해를 입지

24) 신안군지편찬위원회편, 『신안군지』 권4, 신안의 섬 이야기, 신안군, 2017, 419~437쪽.

2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앞의 책, 106~189쪽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않은 곳이 없었지. 다만 남부에 있는 이곡리만 예외였지. 죽련리(섬의 남부)와 명당리(섬의 동부) 등은 산을 끼고 있어서 예외였지만, 북부 제방이 터지면 우리는 모두 몽니마음이 되죠. ... 제방 건설 구역에 말뚝을 세워놓고, 각 마을마다 구역을 설정하였지. 배가 고파도 맡은 바 의무를 다해야했어. 독이 터지면 큰일이니까 우리 모두 울력에 참여했지.²⁶⁾

a-2) 온전히 면민들 힘으로 만들었지요. 산에서 지게로 돌을 짚어지고 와서 독을 쌓았죠.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도초도에는 자연마을이 30개인데, 이것을 3등분해서 1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어요. 10개를 단위로 신축해야 할 제방의 총 길이를 측량해서 똑같이 나눠 일을 추진했어요. ... 독을 쌓다가 어느 한 곳이 터지면 해당 마을 사람들이 막고 ... 아마도 지금 같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였을 것 같아요. 당시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보릿고개를 넘는 시절이었지요. ... '오곡밥에 기적국'. 기적국이란 바닥에 기어 다니는 꽃게를 뺏아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유일한 반찬이었어요.²⁷⁾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해방 후 도초도 북부 간척사업은 섬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추진되었다. 작업 단위는 행정리로 편성되었고, 소속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방조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의 시작과 끝, 제방 관리와 보수 등이 모두 해당마을 주민들의 책임아래 진행되었다. 섬 주민들은 공공울력에 총동원되었지만,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것은 매년 찾아오는 바닷물의 침수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술을 토대로 방조제 공사의 단계별 작업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작업은 '경치-돌 세우는 일'이다. 방조제 공사는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석공과 섬주민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다행스럽게 도초도 발매마을에 석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²⁸⁾ 석공들이 '경치-돌'을 만들어주면 섬 주민

26) 제보자: 김○철, 전남 신안군 도초면 신촌마을 거주.

27) 제보자: 고○만, 전남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거주.

28) 1980년대 이래로 필자는 섬 답사에 참여해왔다. 섬마을을 관찰한 결과 도서마다 문화의 특징이 검출되곤 하였다. 예컨대 비금도의 경우 섬마을 곳곳에 유교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었다. 전통시대

들은 이 돌을 옮겨서 제방의 바다과 외벽을 쌓아 원둑의 외곽을 만들었다. 그런데 작은 경치-돌의 경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쌓으면 될 일이지만, 각 마을에 배정된 큰 돌 10개가 문제였다고 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산을 넘고 갯벌을 지나는 일이어서 맨손으로 작업하기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위가 너무 커서, 장비가 없어서 등의 이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당 마을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마치 '개미가 먹이를 옮기듯' 섬 주민들은 큰 바위를 공사 현장까지 옮기는데 총력을 다 하였다고 한다.²⁹⁾

2단계 작업은 '장부-질로 흙 채우기'다. 기계장비가 없던 시절, 원둑을 튼튼하게 축조하기 위해서는 경치-돌을 잘 놓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부-질로 흙을 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다. 여기서 장부-질이란 3인 1조로, 힘이 센 사람(일명 '왕초' 혹은 '대짹이'라 부름)이 긴 삽을 들고 흙을 떠서 던지면, 양 옆에 서 있는 사람(속칭 '줄짹이'라 칭함)이 삽에 줄을 달아서 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장부-질은 3명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였다. 3인의 호흡이 잘 맞으면 장부-질로 흙을 쳤을 때 돌 위에 납작하게 흙이 잘 달라붙었다고 한다. 그 다음 손에서 손으로 흙덩어리를 옮기는 '팔드름' 방법도 활용되었다. 이런 까닭에 장부-질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다른 마을에서 장부질-꾼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도 해당 마을 주민들의 몫이었다.

3단계 작업은 '방조제 절강'이다. 간척에 있어서 제방 공사는 조수와 의 싸움이었다. 매일 두 차례 들물과 날물이 발생하고, 보름 간격으로 물살의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수에 맞춰 간척공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제방 공사는 '조금새'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조금새'란 음력 8일과 23

비금도에서 晝堂이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마을 초입마다 서당 훈도들의 공적비가 줄지어 서 있었다.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의 위패를 봉안한 사우와 재실이 현전하고 있었다. 반면에 도초도의 경우 고란리 고란마을에 '칼을 차고 서 있는 장군을 새긴 석장승'이 봉안되어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도초도 발매리 발매마을에 예로부터 석공들이 세거하였다고 전해온다.

29) 제보자: 김○복,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거주.

일을 기준 삼아 그 전후 2~3일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가 물살이 가장 약하고 물이 들어와도 신축 제방까지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반대로 음력 보름과 그믐의 경우 물이 가장 많이 들고 나가는 '사리'여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제방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절강'이었다. 즉 원뿔을 쌓아오다가 마지막에 개옹을 막아야만 비로소 제방이 완성되었다. 대개 개옹은 깊고 조수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절강작업이 쉽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절강 작업을 할 때 마을 대표들이 고사를 지내고, 흔히 '제숙'이라고 칭하는 돼지머리를 준비하여 제사를 올리는 등 간척 공사의 최대 난관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4단계는 제방 보수 및 관리다. 섬 주민들은 제방을 직접 관리하였다. 물론 도초도 인근 안좌도 전진언의 경우 제방 보수와 농경수 관리를 위해 堰契를 조직하고, 공동체에서 제방 관리인[保主]를 채용하여 공동 경비로 보수를 지급하였다. 또 농경수 관리인[水口] 역시 연계에서 사람을 채용하여 공동 경비로 운영하였다.³⁰⁾ 그런데 도초도 사람들은 신축 제방의 공사 구간을 측량한 다음 해당 마을별로 구역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 구역 주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독으로 달려가야만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방은 무너진 자리가 항상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절강자리가 무너지기 일쑤였다. 특히 사리 때 태풍이 오거나 영등사리 혹은 백중사리 등 물이 가장 높을 때 제방에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³¹⁾

이런 단계를 거쳐 섬에 제방을 쌓고 간척지를 만들었다. 소위 섬사람들이 '새언' 혹은 '외언'이라 칭하였던 제방 안쪽에 간척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다시 제방과 간척지가 붕괴되면 보수하고, 태풍이 몰려오면 제방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그렇게 온몸으로 만든 간척지는 섬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地目을 부여받았다. 간척지의 첫 번째 지목은 '전답'이었고, 그 다음 '염전'이었다. 1950년대 도초도 사람들은 간척지의 일부를 통으로 떼어서 소위 '학교염전'이라는 지목을 부여한 것이다.

30) 김경옥, 앞의 논문, 2013, 25~26쪽.

31) 제보자: 고○만, 전남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거주.

3) 외남방조제의 복구와 학교염전의 설치

섬의 공간변화는 주민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섬에 근대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대체로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中等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까닭에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역민이 학교 교육을 주도하였다. 대체로 지역 사립학교의 설립은 개인·문중·지역민·지역공동체·지방관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그것은 사립학교의 자산 출처와 규모가 사실 학교를 유지할 만큼 재정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³²⁾

도초도의 경우 1931년에 도초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1952년에 중등교육기관인 도초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³³⁾ 도초도 사람들의 구술에 의하면, 도초고등공민학교의 설립주체가 섬 주민들이고, 이 학교의 재원이 섬 공동체에서 기부한 소위 ‘학교염전’이라고 한다.³⁴⁾

그렇다면 학교염전의 위치는 어디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전하는 염전문서와 섬주민의 구술을 토대로 재구성해보자. 광복이후 도초도의 간척사업은 미개발로 남아있던 섬의 북부 화도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섬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공공율력으로 건설한 제방이 외남방조제였다. 이 제방은 1947년에 도초면의 법정리 10리, 자연촌 30개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건설하였다. 그런데 외남방조제를 축조한 이듬해인 1948년에 소위 ‘무자년 해일’이라 부르는 태풍이 전라도 서남해역을 강타하였다. 당시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도초도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었다. 이 재난은 비난 도

32)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설립주체와 재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5쪽.

33) 도초고등공민학교는 1952년 6월 10일에 개교하였다. 1964년 2월 10일에 도초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76년 12월 1일자로 학교법인 도초중학교를 폐지하고, 1977년 1월 21일에 공립 도초중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17년 3월 1일 도초중학교는 인접한 비금중학교와 통합되어 폐교되었다(『鹽田開發鹽製造許可證』, 『기부(중여)사유서』, 1977년 9월 2일, 학교법인도초중학교이사장 황양남).

34) 도초고등공민학교의 재정에 대해서는 본고 2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초고등공민학교는 도초도 주민들이 희사한 염전과 전답으로 세운 사립중등학교이다.

초도에서만 일어난 재해가 아니었다. 도초도와 인접해 있는 안좌도 전진언의 경우도 개인 뚝이 모두 파괴되고, 농경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다. 당시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였는지 안좌도 주민들은 개인 주도로 제방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안은 공동체 주도로 방조제와 농경지의 복구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한다.³⁵⁾

도초도 주민들도 외남방조제를 공공웁력으로 복구하였다. 그 첫 걸음은 간척지 공사를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 때 섬 주민들은 개인 자산을 회사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러한 정황이 『鹽田開發鹽製造許可證』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1949년 10월 8일에 작성된 『喜捨記』라는 문건에 의하면, 문서의 발급자는 김○오씨이고, 수급자는 도초면민 염전 대표 김○효씨이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금 번 본 面의 발표와 면민 경제의 항구적인 안정책으로 도초면에서 운영하는 염전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본 면 개발을 위해 축하할 일이다. 이에 우리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공사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들의 자산 일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바 다음과 같이 개인 자산을 회사함을 확인하는 바이다.³⁶⁾

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 다음 문서 중앙에 기부 재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도초도 간척사업을 위한 섬주민의 기부(기증) 사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환산 가격(1949년 시가)
외남리	795	畓	168	25,200
	950	田	703	70,300
	972	田	211	21,100

35) 김경옥, 앞의 논문, 2013, 18~32쪽.

36) 『鹽田開發鹽製造許可證』 제796호, 『喜捨記』, 1949년 10월 8일.

	452	田	169	36,900
	193	畓	1028	154,200
	451	畓	135	20,250
	60	田	379	37,900
	329	田	787	78,700
	79	畓	384	42,600
소계	畓		1,615	242,250
	田		2,449	244,900
합계	田畓		4,064	487,150

위의 [표7]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 소유의 전답을 도초면 개발과 섬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섬 주민들의 기부 행렬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대 도초도 사람들은 면민 주도로 염전개발계획을 단행하였다.

그 다음 문제는 본격적인 공사 대금이었다. 해결 방안은 제14대 도초면장 문도연(1950.6~1952.2)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도초면민을 대표하여 전매청으로부터 염전개발비 명목으로 대출금 870만원을 인출하였다. 당시 대출 자금으로 도초도 사람들은 총 7관의 천일염전을 만들었다고 한다.³⁷⁾ 이 가운데 염전 3관은 도초면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고, 염전 1관은 면민의 안전을 위해 목포경찰서 도초지서에 분정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염전 3관은 1952년에 개교한 도초고등공민학교의 재원으로 기부하였다.

4. 맺음말

이 글은 전라도 나주목 부속도서인 도초도 간척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섬

37) 1952년에 설립된 도초고등공민학교는 1962년 도초중학교로 개명되었으며, 1976년 7월 30일에 학교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1977년에 도초중학교 공립화를 추진하였으며, 1978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재원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기부하기로 합의하였다(『염제조허가증』, 제796호, 1979. 7.25).

의 공간은 간척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왔다. 전근대 도초도는 1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15세기 도초도는 주민들의 정주공간 이라기보다는 국용조달을 위해 목장과 송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후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내륙지역 유이민들이 도초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현재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성씨별 입도유래를 조사한 결과 총 47건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16~17세기에 입도한 사례가 33건으로 무려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6세기에 도초도로 이주한 입도조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세거지는 발매리의 화도(속칭 불섬)와 월포, 지남리의 지남과 지북, 외남리의 외하(현, 외남하리), 고란리의 고란과 난말, 오류리의 시목, 수다리의 나포 등지였다. 대체로 문전옥답이 분포하고 있었던 곳이다. 그 뒤를 이어 17세기에 도초도로 입도한 이주민들은 발매리의 발매와 춘경, 지남리의 지동, 수항리의 수항·궁항·나박포, 죽련리의 신고, 오류리의 오류, 이곡리의 이곡상·소신·이곡하, 만년리의 만년·도락·한밭 등지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16세기 선주민들이 정착하였던 마을의 외곽에 거주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섬에 정착한 주민들은 마을 앞에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만들었다. 이것을 '구원[舊堰]' 혹은 '내원[內堰]'이라 불렀다. 즉 초창기에 축조한 제방이라는 의미이고, 섬 안쪽에 입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후 섬사람들은 구원 너머에 새로 제방을 쌓아 점차 간척지의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이것을 '신원[新堰]' 혹은 '외원[外堰]'이라 칭한다. 그러나 간척지는 예나 지금이나 곧장 농경지로 이용할 수 없었다. 간척지가 아직 찻물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섬사람들은 간척지를 밭으로 활용하였다. 밭작물은 비교적 간기에 강한 목화·보리·콩을 심었다. 목화밭과 보리밭이 논으로 바뀌는데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다. 이런 까닭에 중앙정부는 도서 이주민들에게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간척지를 개토하여 비로소 논으로 사용할 때 토지세를 부과한 것이다. 도초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6세기 말엽에 도초도에 입도한 사람들이 토지세 부과 대상자로 선별된 것은 17세기 중엽이다. 당시 중앙의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전라도 섬주민들에게 분정되었는

데, 그 가운데 도초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근대 도초도의 공간변화는 문헌과 지적도에서 검출하였다. 먼저 1911년에 간행된 『한국수산지』에 의하면, ‘도초도의 서남부가 개간되어 농경지가 많고, 섬의 북동부 일대는 갯벌이 많으며, 남서부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수심이 깊다.’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즉 섬의 서남부를 제외하고 동북부가 아직 간척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6년에 제작된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당시 도초도에서 가장 넓은 필지가 지남리, 고란리, 이곡리, 수항리 등지에서 검출되었다. 즉 섬의 서편에 입지한 지남리, 섬의 중앙에 있는 고란리에 전답이 집중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들 지역은 전근대에 간척을 통해 이미 문전옥답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들녘이 고란리에 조성되었고, 이 고란평야를 중심으로 1910년대 도초면소재지가 형성되었다. 그 후 1930년대에 신축 방조제 공사가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죽련리의 집념어방조제(1930)·한산방조제(1932)·죽련방조제(1938), 그리고 이곡리 이곡방조제(1939) 등이다. 이 제방을 완공한 결과 섬의 남부 간척지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그런가하면 1940년대에 조성된 방조제 공사결과 섬의 남부에 입지한 죽련리의 비닐치방조제(1942), 이곡리의 소신방조제(1942)가 완공되고, 연이어 섬의 북부에 입지한 외남리 외남방조제(1947), 발매리 화도방조제(1948), 수다리 나포방조제(1949) 등이 연이어 건설되었다. 즉 도초도의 토지는 섬의 중앙을 관통하는 고란리의 고란평야를 중심으로 하고, 간척을 통해 섬의 남부 죽련리와 이곡리에 간척지가 조성되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 섬의 북부와 서부권에 새로운 제방이 건설되면서 섬 전역에 농경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근대 도초면소재지가 문전옥답을 중심으로 고란리에 형성되었다가, 근대에 간척사업 결과 면소재지가 수항리로 전진배치된 것이다. 이곳에 면사무소, 경찰지서, 학교 등이 집중 배치되었다. 또 포구의 경우 간척으로 인해 변경되었다. 초창기 도초도의 포구는 수항리의 나박포였다. 나박포는 내륙 깊숙이 입지하여 일찍이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하였으나, 간척으로 인해 매립되면서 포구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대신 섬의 북부에 입지한 화도(일명 불섬) 일대가 개발되면서 도초도를

대표하는 중심포구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화도포구는 서쪽으로 흑산도에 당도하고, 동쪽으로 목포로 향하는 뱃길이 열려있다.

근현대 도초도 간척공사의 백미는 북부에 건설된 외남방조제였다. 이 제방은 1947년에 도초도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공공웁력으로 조성되었다. 외남방조제의 축조는 신임 도초면장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다. 도초도는 지형적으로 해수 침수 피해가 극심하였던 섬이었다. 비교적 전근대에 대규모 농경지를 마련하였으나, 태풍과 해일로 인해 섬 전체가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북부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염원 아래 도초도 10개리 30개 마을 주민들이 공공웁력에 동원되었다. 마침내 외남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그 안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도초도 사람들은 간척지에 천일염전 7판을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염전 3판은 도초면민 공동의 몫으로 분정하고, 또 염전 3판은 '학교염전'이라 명명하였다. 이 재원이 도초고등공민학교의 운영비로 기부되었다. 그리고 염전 1판은 섬주민의 안전을 위해 목포경찰서 도초지서에 배정하였다.

1950년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섬마을의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한 주체가 섬주민들이었다. 타 지방에 건립된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원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초도 주민 주도로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은 1950년대에 개교하여 이후 1960년대에 사립 도초중학교로 개편되고, 1970년대에 국립 도초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20세기 전라도 신안군 도초면에 소재한 이름도 생소한 '학교염전'이 섬 주민들의 공공웁력으로 축조한 제방 건설의 산물이었고, 그로 인해 조성된 간척지를 재원 삼아 근현대 섬마을 중등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모두 간척이 이룬 성과였다.

■ 참고문헌

- 『태종실록』, 『세종실록』, 『비변사등록』, 『여지도서』, 『호구총수』
- 『全羅道靈巖郡於義宮立案實得是在郡地昆一道牛嶼堰新築堰畚及筒槩刈取處打量成冊』, 1677, 서울대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奎18406
- 『전라남도무안군도초면지적원도』 1910~1918
- 『도초면토지대장』 1916
- 『도초면방조제대장』
- 『염전개발염제조허가증』
- 『학교인가서류철』 1937, 1957, 1963
- 『학교연혁』 1964 以降
- 『도초고등공민학교연혁지』 1962~1964
- 『시령부』 1964
- 『재산대장』 1964
- 『법인임원승인대장』 1964 以降
- 『등기대장』 1968~1970
- 『학교법인 도초중학교 현황』 1975
-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83
-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혜안, 2004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 - 비금면·도초면』, 신안군, 2015
- 정윤섭, 『조선후기 해남윤씨의 해안전 개발과 도서·연해경영』,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해남윤씨의 간척과 도서 경영』, 민속원, 2012
- 정진숙, 『20세기 초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 연구 - 설립주체와 재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경옥, 『조선시기 喬桐 사람들의 입도와 축통·제언을 통한 토지개간』, 『도서문화』 3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8, 241~272쪽.
- _____, 『19~20세기 안좌도 전진언수계기를 통해 본 제언 축조와 운영 실태』, 『장서각』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0~42쪽.
- _____, 『19~20세기 암태도 주민들의 제언축조와 경제생활 - 익금리 광두언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5, 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394~422쪽.
- _____, 『19~20세기 비금도 간척지의 조성과 이용 실태』, 『한국학연구』 4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495~524쪽.
- _____, 『20세기 비금도 가산리의 공간변화와 간척지의 이용실태』, 『역사와 경계』 102, 부산경남사학회, 2017, 111~145쪽.
- 김자중, 『일제식민지기 조선의 고등교육체제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38-3, 한국교육사학회, 2016, 59~87쪽.
- 백남곤, 『일제시기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1~61쪽.

- 이광록, 『근현대 신안군 도초도의 간척과 그 영향』,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54쪽.
- 이문포, 『일제하 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5쪽.
- 이선옥, 『일제시기 진주지역 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주도세력의 동향』,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68쪽.
- 이창영, 『1920년대 무안군 도초도 농민운동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55쪽.
- 이태진, 『15~16세기의 저평·저습지 개간농업』, 『국사관논총』 2, 국사편찬위원회, 1989, 133~166쪽.
- 임현오, 『서남해 연해도서지역의 촌락발달과 경지확대과정 -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38쪽.

A Study on the Spatial Change of Docho island in Naju-mok, Jeolla-do in Modern and present age and the Installation of ‘School-Salt evaporation pond’

Kim, Gyung-Ok*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land reclamation of Docho island (now Docho-myeon, Shinan-gun), which is an annexed island of Naju-mok, Jeolla-d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Docho island was an island where the ranch and the pine forest were built. The space of the island was used as a ranch and pine forest for national expenditure procurement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settlement space for island resid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ndering people from the inland area moved to the island. The immigrants from the inland made a reclaimed land by built an embankment in front of the village. That was called ‘Gu-eon Old Embankment’ or ‘Nae-eon Inner Embankment’. After that, people in the Docho island built ‘Sin-eon New Embankment’ beyond Old Embankment and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reclaimed land. After liberation, people in the Docho island built a large-scale reclaimed land by constructing a seawall in the northern part of the undeveloped island. When the reclamation work was completed, the people in Docho-island named the reclaimed land as ‘School-Salt evaporation pond’ and donated the source of revenue as an operating fund of ‘Docho higher civic education school’. The land reclamation made on island in the modern and present age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sland

* HK Professor, 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village's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 Jeolla-do, Naju-mok, Docho island, Immigrant, Pine forest, Ranch, Reclamation, Embankment, Salt farm, School-Salt evaporation pond, Land registration map, Land register, Docho higher civic education school.